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분석

3교시 영어영역

1. 영어영역 출제 경향

* 출제 경향 특징

1. EBS 연계 교재 <수능특강>에서 연계되어 73.3%(33문항)가 출제되었다.
2. 신유형 없이 작년 수학능력시험에서 나온 유형들이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다.
3. 전체적으로는 평이하게 출제되었으나, 절대평가를 위한 변별력 확보용 고난도 문항들도 출제되었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영어영역은 작년 수능 및 9월 모의평가와 같이 듣기 17문항, 읽기 28문항이 출제되었다. 대학 수학에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과 2009 개정 영어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목표 및 내용의 습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에서 다양한 소재의 글과 대화를 제시하였고, 영어의 유창성 뿐만 아니라 정확성을 강조하여 영어로 소통하는 데 필요한 어휘 및 문법 능력, 사실적 이해력, 추론적 이해력, 종합적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들이 고루 출제되었다. 전체 45문항 중 EBS 교재에서 73.3%(33문항)가 연계되었는데, 듣기 및 말하기 문항의 경우 총 17문항 중 EBS 교재에 나온 대화/담화를 재구성하거나 소재, 그림 및 도표 등을 활용하여 15문항이 출제되었고, 읽기와 쓰기 문항의 경우에도 총 28문항 중 지문과 도표, 그리고 안내문을 활용하여 18문항이 출제되었다.

'수능 출제 오류 개선방안(교육부, '15.3.31)'을 반영하여 대의파악과 세부정보를 묻는 연계 문항의 경우에는 EBS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EBS와 주제·소재·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 등을 활용하여 연계하였고, 동일한 능력을 측정하는 유사한 문항 유형을 가감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모듈형 원칙에 따라 출제 문항 유형 구성을 유연하게 적용하였다. 이에 작년 수능에서는 대의파악 모듈에서 제목추론 유형이 2문항 출제되었으나,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제목추론 유형이 1문항으로 문항수가 줄은 대신 작년 수능에는 없었던 필자의 주장 추론 유형이 출제되었고, 심경을 묻는 유형의 경우 작년 수능에서는 '심경 변화 파악'을 물었으나 이번에는 '심경 파악'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또한 단일장문(1지문 2문항) 빈칸추론 유형 42번 문항이 작년 수능에서는 두 군데에 빈칸이 있었으나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한 군데 빈칸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수능 및 작년 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연결사 추론 유형의 문항 대신 빈칸 추론 유형의 문항이 한 문항 더 출제되어 총 5문항(단일 장문 빈칸 추론 포함)이 출제되었다.

특히 올해는 수능 영어영역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첫해여서 영어영역의 난이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변별력 확보를 위한 고난도 문항(32번, 34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은 예년과 같이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그러나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고려하여 영어 학습량을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인 수험생들은 이번 6월 모의평가 영어영역을 예상보다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세부 출제 경향

1) 듣기 및 말하기

2017학년도 수능능력시험 및 작년 9월 모의평가와 문항 수는 동일하며(17문항) 유형 또한 그대로 유지되었다. 듣기·말하기 영역의 17개 문항 중, 듣기 문항이 12개, 간접 말하기 문항이 5개 출제되었다. 간접 말하기 문항은 짧은 대화 응답 2문항과 대화 응답 2문항, 담화 응답 1문항이 출제되었다. 듣기 문항은 대화나 담화의 목적, 의견, 대화자의 관계 등 추론적·종합적 이해를 평가하는 문항이 3문항, 그림과 표, 할 일·이유 파악, 지불할 금액, 언급되지 않은 것, 그리고 담화·대화 내용 일치와 같은 사실적 이해를 평가하는 문항이 7문항, 2문항 한 세트의 복합 문항이 출제되었다. 복합 문항 유형은 1대화·담화 1문항과 달리 두 번 들려주어 수험생의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복합 문항 유형인 16번과 17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EBS교재와 연계되어 출제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의 대화와 담화가 제시되어 출제되었다.

2) 어법 및 어휘

어법 및 어휘 문항은 작년 수능 및 작년 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각각 1문항씩(밑줄 어법, 네모 어휘) 출제되었으며 두 문항 다 EBS 교재에서 연계되었다. 어법 문항은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의 적절한 형태, 지칭 대상의 수에 적절한 대명사, 병렬구조 관계에 있는 동사의 형태, 과거 분사를 꾸며주는 단어의 적절한 품사, 적절한 관계대명사 종류와 같이 문장 구조에 대한 기본적 이해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어휘 문항은 전체적인 글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EBS 연계 교재를 통해 지문을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들은 수월하게 문맥에 맞는 낱말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읽기 및 쓰기

읽기·쓰기 영역의 전체 28문항 중 순수 읽기 문항이 22개, 간접 쓰기 문항이 6개 출제되었다. 간접 쓰기 문항은 '무관한 문장' 1개, '글의 순서' 2개, '문장 삽입' 2개, 그리고 '문단 요약' 유형의 문항이 1개 출제되었다. 읽기 문항은 대의를 파악하는 문항 유형(목적, 심경, 주장, 요지, 주제, 제목)이 6개,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항 유형(도표, 내용 불일치, 실용문 내용 일치·불일치)이 4개 출제되었다. 빈칸 추론 유형은 빈칸에 들어갈 표현이 '구' 단위에 해당하는 문항 2개, '절' 단위에 해당하는 문항 2개 등 모두 4문항이 출제되었다. 또한 지칭추론 유형 문항 1개, 그리고 단일 장문(1지문 2문항) 유형과 복합 장문(1지문 3문항) 유형이 각각 한 세트씩 출제되었다.

문항 유형은 작년 수능에서는 두 단어 빈칸 추론, 9월에는 연결사 추론 유형으로 출제되었던 단일 장문(1지문 2문항)의 42번 문항이 한 단어 빈칸 추론 유형으로, 그리고 작년 수능에서는 제목추론 유형이 2문항 출제되었으나,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제목추론 유형이 1문항으로 줄

은 대신 작년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필자의 주장 추론 유형이 출제되었다. EBS 교재와는 16문항(어법, 어휘 문항 제외)이 연계되어 출제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글감이 고루 제시되어, 빈칸 추론 4문항 중 2문항은 EBS 교재와 연계되지 않고 출제되었고, 장문독해 문항들도 연계되지 않고 출제되었다.

3. 특징적인 문항

최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 고난도의 문항(32번(연계), 34번(비연계))과 문항 유형에 적절한 지문을 선택하여 잘 구성한 40번(비연계)이 특징적인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다.

1) 우수 문항 분석

- 40번: EBS 교재와는 비연계 문항이며, 진화론적 관점에서 우리 조상들이 생존을 위해 택했던 삶의 방식에 관한 글이다. 수렵·채집 사회에서 살던 인간들을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선택의 순간에 식량이 아주 많이 남아도는 것을 택하기 보다는, 오히려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 처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을 하는데, 이러한 것이 겉보기로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생존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라는 내용이다. 지문의 내용이 참신하고 핵심 단어인 securing과 survival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요약문 완성 문항을 구성하였다.

2) 고난도 문항

- 32번: 정치적 견해에는 다양성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의견 차이를 억압하여 의견일치를 이루는 것을 정치적 고려에서 목표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이다. EBS 교재와 연계되어 있는 문항이나, 지문의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학생들에게 교육적이고, 빈칸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의 구문적 특성(A defense is required against any suggestion that ~)으로 인해 글 전체의 요지를 이해한 후에도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정답을 유추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므로 수험생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졌으리라 예상된다.
- 34번: EBS 교재와는 비연계 문항이며, 모든 생명이 바다에서 비롯되어서 물고기, 양서류, 무척추동물과 같은 대부분의 생명체는 자신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바닷물과 같은 화학적 구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지문 전체의 어휘 수준이 높고, 내용이 생소할 뿐 아니라 추상적이고, 오답 선택지가 정교하게 제작되어 있어 글의 논리를 따지며 하나씩 확인해야 했으므로 수험생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졌으리라 예상된다.

4. 난이도

영역	2016년 6월 시행 모의평가 비교	2017학년도 수능 비교
영어	비슷하거나 약간 쉬움	비슷하거나 약간 쉬움

1) 전체 난이도

전체적으로는 2016년 6월 모의평가 및 2017학년도 수능과 대체로 비슷하거나 조금 쉽게 출제되었다. 중하위권 학생들도 풀 수 있는 평이한 문항이 다수 출제되어 전체적인 평균은 최근 모의평가 및 수능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난도 문항은 2문항 정도 출제되어 변별력을 확보하려 하였고, 이외의 문항은 대체로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된 것으로 생각된다.

2) 교과별 세부 난이도

① 듣기 및 말하기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고, 2016년 6월 모의평가와 2017학년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3점 문항은 숫자 정보를 파악하는 유형인 9번과 긴 대화에서 응답을 찾는 유형인 13, 14번에서 출제되었다. 9번은 1인승 카약과 고성능 노를 3시간 동안 대여하며 10% 할인쿠폰을 사용할 때 최종적으로 지불할 금액을 계산하는 내용으로, 여러 숫자 정보가 나오지만 평소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여 듣기 능력을 기른 학생들은 무난히 풀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13번은 공연을 앞두고 있는 남자가 런던에 계신 부모님께 자신의 공연을 보여드릴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하는 상황에서 여자가 할 말을 찾는 문항이다. 14번에서는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문항은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칭찬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여자의 마지막 이야기에 대한 남자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두 문항 모두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정확히 듣고 이해하여 적절한 응답을 찾아야 하므로 비교적 변별력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의 문항들은 평소 EBS 교재를 이용하여 충분히 듣기 능력을 길렀다면 대화와 담화에서 정답의 단서를 놓치지 않고 무난하게 풀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어법 및 어휘

어법 문항은 밑줄 친 다섯 개의 선택지 중 어법상 틀린 것을 찾는 유형으로 한 문항이 출제되었고 어휘 문항은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을 찾는 유형으로 역시 한 문항이 출제되었는데, 두 문항 모두 EBS 교재에서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28번 어법 문항의 경우, 분사의 쓰임, 대명사의 지칭, 병렬구조, 부사의 쓰임, 관계대명사의 형태와 같이 영어의 핵심적인 어법을 내실 있게 익힌 학생들은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분사의 쓰임과 대명사의 지칭 대상을 혼동한 학생들은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어법 사항을 기계적으로 암기하기보다 다양한 지문을 읽으며 맥락 속에서 어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필요가 있다.

29번 어휘 문항은 지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읽고 문맥에 알맞은 어휘를 찾는 문제로, 운동선수 에 대한 정신 능력 훈련의 필요성에 관한 글의 흐름을 이해하고 기본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은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 읽기 및 쓰기

2016년 6월 모의평가와 2017학년도 수능과 비교하여 이번 모의평가는 대체로 비슷하거나 약간 쉽게 출제된 것으로 생각된다. 지문의 난도는 전반적으로 무난한 편이고, '불수능'이라는 평을 받았던 2016학년도 및 2017학년도 수능보다는 다소 쉬웠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오답 선택지의 매력도가 높았고 절대평가 체제에 따른 학습량의 감소로 인하여 정답을 찾을 때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빈칸추론 유형인 34번은 비연계 문항으로 출제되었는데, 생명체가 바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명체는 민물보다 바다에 더 가까운 화학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 생소하여 이후에 이어지는 지문의 흐름 파악이 어렵고 구문이 복잡했으며, 지문에서 자주 사용된 어휘들로 구성된 매력적인 오답지로 인해 다른 지문에 비해 난도가 높은 문항으로 생각된다.

글의 순서 찾기 유형은 정관사, 지시어, 접속사 등과 같이 순서를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제시되어 비교적 쉬웠을 것으로 파악되나, 37번에서 pop song과 art song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논리적 흐름을 찾지 못한 수험생들은 풀이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어진 문장의 위치 찾기 유형으로 출제된 지문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주어진 문장과 지문 내 각 문장의 전후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 향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단요약 유형으로 제시된 40번은 비연계 문항으로 출제되었는데, 내용이 생소하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과거에 두었던 우선순위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며 읽어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문제였다고 생각된다.

장문독해는 최근에 들어 평가원 시행 모의평가에서 출제 유형의 변화를 다소 겪었던 편이지만,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모두 2017학년도 수능과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되어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익숙하게 접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빈칸추론 유형으로 출제된 42번 문항은 지문에서 언급된 예술과 문화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읽어내야 정답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의파악과 세부정보를 묻는 문항에서는 EBS 교재의 지문이 그대로 연계되지 않고 주제, 소재, 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이 간접적으로 연계되었는데, 평소 EBS 연계교재로 열심히 공부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문을 골고루 읽은 수험생들에게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5. EBS 교재와의 연계 분석

문항 번호	EBS 교재 연계 내용
	교재명 / 쪽수 / 문항번호 (내용요소)
1	수능특강 / 영어듣기 / p.68 / 11강 / 3번 (언급)
2	수능특강 / 영어듣기 / p.181 / 26강 / 10번 (언급)
3	수능특강 / 영어듣기 / p.69 / 11강 / 4번 (언급)
4	수능특강 / 영어듣기 / p.123 / 20강 / 16번 (주제)
5	수능특강 / 영어듣기 / p.130 / 21강 / 8번 (숫자정보)
6	수능특강 / 영어듣기 / p.45 / 7강 / 4번 (그림일치)
7	수능특강 / 영어듣기 / p.38 / 6강 / 1번 (대화목적)
8	수능특강 / 영어듣기 / p.96 / 16강 / 2번 (짧은대화 응답)
9	수능특강 / 영어듣기 / p.69 / 11강 / 5번 (언급)
10	수능특강 / 영어듣기 / p.10 / 1강 / 3번 (대화 목적)
11	수능특강 / 영어듣기 / p.39 / 6강 / 5번 (의견)
12	수능특강 / 영어듣기 / p.80 / 13강 / 3번 (도표)
13	수능특강 / 영어듣기 / p.84 / 14강 / 3번 (부탁한 일)
14	수능특강 / 영어듣기 / p.28 / 4강 / 1번 (대화 주제)
15	수능특강 / 영어듣기 / p.85 / 14강 / 5번 (이유)
18	수능특강 / 영어 / p.56 / 9강 / 4번 (실용일치)
19	수능특강 / 영어 / p.54 / 9강 / 1번 (내용일치)
20	수능특강 / 영어 / p.35 / 5강 / 4번 (어조/분위기)
21	수능특강 / 영어 / p.201 / Test2 / 24-25번 (1지문2문항)
22	수능특강 / 영어 / p.44 / 7강 / 2번 (어법)
23	수능특강 / 영어 / p.38 / 6강 / 1번 (어휘)
24	수능특강 / 영어 / p.179 / Test1 / 13번 (도표)
25	수능특강 / 영어독해연습 / p.154 / MiniTest1 / 5번 (주제)
26	수능특강 / 영어독해연습 / p.211 / MiniTest3 / 10번 (실용일치)
27	수능특강 / 영어 / p.57 / 9강 / 5번(실용일치)
28	수능특강 / 영어독해연습 / p.147 / 12강 / 11번 (어휘)
29	수능특강 / 영어독해연습 / p.218 / MiniTest3 / 17번 (연결사)
30	수능특강 / 영어 / p.206 / Test3 / 5번 (제목)
31	수능특강 / 영어 / p.78 / 12강 / 1번 (연결사)
32	수능특강 / 영어독해연습 / p.152 / MiniTest1 / 3번 (주장)
35	수능특강 / 영어독해연습 / p.122 / 10강 / 10번 (요약)
36	수능특강 / 영어독해연습 / p.216 / MiniTest3 / 15번 (빈칸)
38	수능특강 / 영어독해연습 / p.114 / 10강 / 1번 (어휘)

6. 대표 연계 문항

<p style="text-align: center;">6월 모의평가 문항 6번</p> <p>6.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p>	<p style="text-align: center;">EBS 수능특강 영어듣기 45쪽 4번</p> <p>4.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p>
---	--

<p style="text-align: center;">6월 모의평가 문항 24번</p> <p>24.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p> <p>Direct expenditures on education as a percentage of GDP for the five OECD countries with the highest percentages, by level of education: 2011</p> <table border="1"> <caption>Direct expenditures on education as a percentage of GDP for the five OECD countries with the highest percentages, by level of education: 2011</caption> <thead> <tr> <th>Country</th> <th>All institutions combined</th> <th>Elementary and secondary</th> <th>Postsecondary</th> </tr> </thead> <tbody> <tr> <td>Denmark</td> <td>7.9</td> <td>4.4</td> <td>1.9</td> </tr> <tr> <td>Iceland</td> <td>7.7</td> <td>4.0</td> <td>1.5</td> </tr> <tr> <td>Republic of Korea</td> <td>7.6</td> <td>4.1</td> <td>2.6</td> </tr> <tr> <td>New Zealand</td> <td>7.5</td> <td>5.4</td> <td>1.5</td> </tr> <tr> <td>Israel</td> <td>7.3</td> <td>4.2</td> <td>1.7</td> </tr> </tbody> </table> <p>Note: All institutions combined includes expenditures that could not be reported by level of education.</p> <p>The above graph shows direct expenditures on education as a percentage of GDP for the five OECD countries with the highest percentages in 2011, by level of education. ① All the five countries spent over seven percent of their GDP on direct expenditures on education for all institutions combined. ② Of the five countries, Denmark spent the highest percentage of GDP for all institutions combined. ③ In terms of direct expenditures 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New Zealand spent the highest percentage of GDP among the five countries. ④ As for direct expenditures on postsecondary education, Iceland spent a higher percentage of GDP than the other four countries. ⑤ Compared with the Republic of Korea, Israel spent a lower percentage of GDP on postsecondary education.</p>	Country	All institutions combined	Elementary and secondary	Postsecondary	Denmark	7.9	4.4	1.9	Iceland	7.7	4.0	1.5	Republic of Korea	7.6	4.1	2.6	New Zealand	7.5	5.4	1.5	Israel	7.3	4.2	1.7	<p style="text-align: center;">EBS 수능특강 영어 179쪽 13번</p> <p>13.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p> <table border="1"> <caption>Direct expenditures on education as a percentage of GDP for six OECD countries with the highest percentages, by level of education in 2011</caption> <thead> <tr> <th>Country</th> <th>All institutions</th> <th>Elementary and secondary</th> <th>Postsecondary</th> </tr> </thead> <tbody> <tr> <td>OECD average</td> <td>6.1</td> <td>3.8</td> <td>1.8</td> </tr> <tr> <td>Denmark</td> <td>7.9</td> <td>4.4</td> <td>1.9</td> </tr> <tr> <td>Iceland</td> <td>7.7</td> <td>4.0</td> <td>1.5</td> </tr> <tr> <td>Korea</td> <td>7.6</td> <td>4.1</td> <td>2.6</td> </tr> <tr> <td>New Zealand</td> <td>7.5</td> <td>5.4</td> <td>1.5</td> </tr> <tr> <td>Israel</td> <td>7.3</td> <td>4.2</td> <td>1.7</td> </tr> <tr> <td>United States</td> <td>4.8</td> <td>1.2</td> <td>3.3</td> </tr> <tr> <td>Country</td> <td>6.8</td> <td>4.2</td> <td>2.7</td> </tr> </tbody> </table> <p>The above graph shows direct expenditures on education as a percentage of GDP for six OECD countries with the highest percentages in 2011, by level of education. ① All the countries but the United States spent over seven percent of their GDP on direct education expenditures for all institutions combined. ② New Zealand was the country that spent the highest percentage of GDP 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③ The percentage of GDP the United States spent 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was slightly lower than the OECD average (3.8 percent), while all the other countries spent more than 3.8 percent of their GDP 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④ At the postsecondary level, spending as a percentage of GDP for the United States was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and higher than spending as a percentage of GDP for any other country. ⑤ Only two countries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spent more than two percent of their GDP on postsecondary education: Korea and Denmark.</p>	Country	All institutions	Elementary and secondary	Postsecondary	OECD average	6.1	3.8	1.8	Denmark	7.9	4.4	1.9	Iceland	7.7	4.0	1.5	Korea	7.6	4.1	2.6	New Zealand	7.5	5.4	1.5	Israel	7.3	4.2	1.7	United States	4.8	1.2	3.3	Country	6.8	4.2	2.7
Country	All institutions combined	Elementary and secondary	Postsecondary																																																										
Denmark	7.9	4.4	1.9																																																										
Iceland	7.7	4.0	1.5																																																										
Republic of Korea	7.6	4.1	2.6																																																										
New Zealand	7.5	5.4	1.5																																																										
Israel	7.3	4.2	1.7																																																										
Country	All institutions	Elementary and secondary	Postsecondary																																																										
OECD average	6.1	3.8	1.8																																																										
Denmark	7.9	4.4	1.9																																																										
Iceland	7.7	4.0	1.5																																																										
Korea	7.6	4.1	2.6																																																										
New Zealand	7.5	5.4	1.5																																																										
Israel	7.3	4.2	1.7																																																										
United States	4.8	1.2	3.3																																																										
Country	6.8	4.2	2.7																																																										

<p style="text-align: center;">6월 모의평가 문항 32번</p> <p>32. Politics cannot be suppressed, whichever policy process is employed and however sensitive and respectful of differences it might be. In other words, there is no end to politics. It is wrong to think that proper institutions, knowledge, methods of consultation, or participatory mechanisms can make disagreement go away. Theories of all sorts promote the view that there are ways by which disagreement can be processed or managed so as to make it disappear. The assumption behind those theories is that disagreement is wrong and consensus is the desirable state of things. In fact, consensus rarely comes without some forms of subtle coercion and the absence of fear in expressing a disagreement is a source of genuine freedom. Debates cause disagreements to evolve, often for the better, but a positively evolving debate does not have to equal a reduction in disagreement. The suppression of disagreement should never be made into a goal in political deliberation. A defense is required against any suggestion that</p> <p style="text-align: right;">. [3점]</p> <p style="text-align: center;">* consensus: 합의 ** coercion: 강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political development results from the freedom of speech ② political disagreement is not the normal state of things ③ politics should not restrict any form of difference ④ freedom could be achieved only through tolerance ⑤ suppression could never be a desirable tool in politics 	<p style="text-align: center;">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152쪽 3번</p> <p>03. 다음 글에서 밑줄이 주렁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709-915]</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Politics cannot be suppressed, whichever policy process is employed and however sensitive and respectful of differences it might be. In other words, there is no end to politics. It is wrong to think that proper institutions, knowledge, methods of consultation, or participatory mechanisms can make disagreement go away. Theories of all sorts promote the view that there are ways by which disagreement can be processed or managed so as to make it disappear. The assumption behind those theories is that disagreement is wrong and consensus is the desirable state of things. In fact, consensus rarely comes without some forms of subtle coercion and the absence of fear in expressing a disagreement is a source of genuine freedom. Debates cause disagreements to evolve, often for the better, but a positively evolving debate does not have to equal a reduction in disagreement. The suppression of disagreement should never be made into a goal in political deliberation. A defense is required against any suggestion that political disagreement is not the normal state of things.</p> <p style="text-align: right;">*coercion 강압 **deliberation(상정) 고려</p>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강제로 정치적인 의견 차이를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된다. ②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지향해야 한다. ③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치 이론을 정립해야 한다. ④ 모든 영역에서 사람 간의 차이를 없애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⑤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정치 문도를 조성해야 한다.
---	---

7. 6월모평 이후 2018학년도 수능 대비 학습 전략

1) 상위권 학생 (1, 2등급)

- EBS 연계교재를 심도 있게 학습함으로써 연계되어 출제되는 어떠한 변형 문항에든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비연계 문항과 간접 연계 문항에 대한 적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 모의고사 문제를 정기적으로 풀며 실전 감각을 높이고, 특히 자신이 취약한 유형의 문제 풀이를 집중적으로 연습함으로써 영어영역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
- 고난도 어휘와 구문을 포함하고,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지문을 꾸준히 읽으며 지문의 내용과 논리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양질의 고난도 문항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중위권 학생 (3, 4등급)

- EBS 연계교재에 나오는 지문을 꼼꼼히 분석함으로써 글의 흐름과 내용을 파악하며 구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연습을 한다.
- 보통 31~40번 문제에서 약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유형의 3개년 기출문제를 꾸준히 학습하여 문제를 극복하도록 노력한다.
- 독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직독직해를 생활화하고, 필수 어휘의 다양한 의미를 학습하여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힘쓴다.

3) 하위권 학생 (5등급 이하)

- <수능특강 영어>부터 한 단원씩 차근차근 공부하기 시작한다.
- 상대적으로 점수를 얻기 용이한 듣기 분야의 학습에 힘쓰고, 연계교재에 나오는 어휘를 매일 일정량을 정해두고 꾸준히 암기한다.
-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각 지문의 대의를 파악하고 핵심이 되는 문장을 해석하고 기본 구문을 열심히 공부한다.

	상위권 (1, 2등급)	중위권 (3, 4등급)	하위권 (5등급이하)
학습 목표	평이한 문항에는 실수 없고, 고난도 문항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만점	연계교재와 기출 문제 정복을 통한 성적 향상	듣기, 필수 어휘와 기본 유형 학습을 통한 자신감 향상
학습 교재	연계교재 + 천제의 약속 및 고난도 문항 문제집	연계교재 + 3개년 기출 문제 및 유형별 교재	연계 교재 + 기본 유형별 교재

